

## 딸기(킹스베리) 수출농가 종합기술 컨설팅 만족도 분석

이철휘\*, 서정학\*, 홍기홍\*, 김관후\*, 김현숙\*, 장현동\*, 박평식\*

\*충청남도농업기술원

e-mail:Lch5127@korea.kr

### The Analysis of Strawberry('Kingsberry') farmer's consulting satisfaction

Cheol-Hwi Lee\*, Jeong-Hak Seo\*, Ki-Heung Hong\*, Gwan-Hou Kim\*, Hyun-Suk Kim\*, Hyun-Dong Jang\*, Pyeong-Sik Park\*,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 요 약

딸기 '킹스베리'는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2016년에 개발한 품종이다. 가장 큰 특성은 평균과중이 29.1g으로 대과성을 갖고 있다. 킹스베리는 해외에서 기호도가 높아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 초기단계에서 농가들이 안정적 수출규격품 생산과 수확후 유통에 대한 안정적 체계 구축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킹스베리 수출농가들에 대하여 수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농가는 킹스베리 주산단지인 논산시 노성면 생산농가 3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답변형태를 리커트 5점척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를 활용하였다. 첫번째 수출농가가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중장기적 수출 전망이 밝다」와 「수출농업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가 같이 3.88로 가장 높았다. 이 결과로 볼 때 아직은 만족도 평균이 4.0 아래로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그리고 가장 낮은 항목은 「현재 수출에 만족한다」가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수출농가가 수출에 대하여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고 무언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여 주고 있다. 2019년에 충남농업기술원은 킹스베리 딸기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집단 및 소규모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컨설팅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답변방법을 리커트 5점척도로 하여 분석하였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수출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3.88, 재배기술 향상 3.88 그리고 「생산비 절감」 3.85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는 4.0 미만으로 매우 만족 수준은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수출 단가 상승」가 3.04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수출량 증가」가 3.27 이었다. 이것은 수출로 인한 내수에 비하여 수출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했지만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출량 증가는 현재 수입국에 대한 마케팅 부족으로 수입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킹스베리 수출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의 공감도를 만족도 조사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커트 5점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답변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항목 중 가장 공감도가 높은 것은 「수출 포장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가 3.73, 그리고 수출 품종에 대한 만족」이 3.54 순으로 높았다. 즉 농가들이 수출 포장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출품종 킹스베리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향후 킹스베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 중심으로 개별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출전략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출연금과제(PJ0131082020)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